

‘메이저 퀸’ 전인지, 커리어 그랜드 슬램 도전

LPGA 시즌 마지막 메이저
AIG 여자오픈 4일 개막
고진영·김효주·박인비 등 출전



전인지



고진영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오픈(총상금 680만 달러)이 4일부터 나흘간 영국 스코틀랜드 이스트로디언의 뮤어필드(파71·6728야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을 비롯해 올해 앞서 열린 네 차례 메이저 대회 우승자들인 제니퍼 켈초(미국), 이민지(호주), 전인지, 브룩 헨더슨(캐나다)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한다.

한국 선수로는 고진영, 전인지 외에 최근 LPGA 투어 2개 대회 연속 3위로 호조를 보인 김효주와 2015년과 2017년 이 대회 우승자 박인비, 김인경 등이 출전한다.

또 LPGA 투어 올해 신인 최해진, 안나리과 메이저 우승 경력이 있는 김세영, 박성현 등이 나온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흥정민도 메이저 대회에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는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가 우승했고, 한국 선수로는 김세영의 공동 13위가 최고 성적이었다.

2019년 에비앙 챔피언십 이후 약 3년 만에 메이

저 3승째에 도전하는 고진영은 올해 에비앙 챔피언십 공동 8위에 올랐으나 지난주 스코틀랜드 여자오픈에서는 공동 71위로 주춤했다.

AIG 여자오픈에서는 2015년 준우승, 2019년 3위 등 좋은 성적을 내왔다.

올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메이저 퀸’ 전인지는 이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5대 메이저 가운데 4개 대회 정상에 오르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다.

전인지는 2015년 US여자오픈, 2016년 에비앙 챔피언십, 올해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제패했고 세브른 챔피언십이나 AIG 여자오픈에서

는 아직 우승하지 못했다.

전인지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는 컷 탈락했지만 2020년에는 공동 7위를 했다.

신인왕 경쟁 중인 최해진도 이번 대회 좋은 성적이 필요하다.

현재 신인상 포인트 부문 1위는 아타야 티피쿰(태국)의 952점, 최해진은 891점으로 2위다.

티피쿰과 최해진의 ‘양강 구도’였던 신인상 경쟁은 지난주 스코틀랜드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후루에 아야카(일본)가 3위(485점)로 올라서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또 신인상 부문 4위(327점) 시부노 하나코(일본)는 2019년 이 대회 우승자이기도 하다.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면 신인상 포인트 300점을 받기 때문에 후루에나 시부노 역시 신인상 도전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대회 장소인 뮤어필드는 남자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이 열리는 명문 코스다.

해안에 위치한 링크스 코스로 최근 2013년 디오픈을 개최했으며 여자 브리티시오픈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1744년 개장한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은 원래 270년 넘게 남성 회원들만 받다가 2017년에야 여성 회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남성 전용 코스였던 시기인 1952년과 1984년 여자 아마추어 대회인 커티스 컵이 뮤어필드에서 열렸고, 여자 브리티시오픈은 이번에 처음 뮤어필드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

“우즈 7~8억달러 제안 받고도 LIV 골프 시리즈 참여 거절”
노먼, 구체적인 금액 처음 밝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7·미국)가 LIV 골프 인비테이셔널 시리즈로부터 7억 달러(약 9146억 9000만원) 이상의 제안을 받고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에 따르면 LIV 골프 인베스트먼트 그레그 노먼(호주) 대표는 폭스뉴스 정치평론 프로그램 ‘터커 칼슨 투나잇’(Tucker Carlson Tonight)에 출연해 “우즈가 7억 달러와 8억 달러 사이의 금액을 제안받고도 LIV 골프 참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즈가 LIV 골프 측으로부터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제안을 받고도 거절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노먼이 구체적인 금액 규모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노먼은 “우즈에 대한 제안은 내가 LIV 골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되기 전에 이뤄졌다”며 “우즈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당연하게도 최고 중의 최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지지자인 우즈는 천문학적 금액의 제안을 거절한 뒤 LIV 골프와 LIV 골프로 이적한 선수들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우즈는 지난달 12일 영국 스코틀랜드 파이프주의 세인트앤드루스에서 열린 제150회 디오픈 공식 기자회견에서 “LIV 시리즈로 옮긴 선수들은 지금의 그들을 있게 해준 곳에 등을 돌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일 충북 보은군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105kg이하)에 등극한 오창록(영암군민속씨름단)이 장사 꽃가마를 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암군민속씨름단 오창록 통산 12번째 한라장사 등극

보은장사씨름대회 우승

오창록(28·영암군민속씨름단)이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보은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105kg 이하)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오창록은 2일 충북 보은군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한라장사 결정전(6전 3승제)에서 같은 팀 동료 차민수(21)를 3-1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오창록은 개인 통산 12번째 장사 꽃가마에 오르며 한라장사 강자다운 면모를 뽐냈다. 올해는 1월 설날 대회에 이어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16강에서 우승 후보 중 한 명인 ‘베테랑’ 김보경(연수구청)을 2-1로 물리친 오창록은 8강 상대인 황재원(태안군청), 4강에서 만난 박수훈(영암군민속씨름단)에게 한 점도 내주지 않고 거침없이 승리를 따냈다.

주특기인 들배지기로 황재원과 박수훈을 모두 제압한 오창록은 결승 첫판에서도 들배지기로 차민수를 쓰러뜨리며 1-0으로 앞서나갔다.

두 번째 판에서는 차민수가 반격에 성공해 균형을 맞췄으나, 뒤이어 오창록이 들배지기로 내리 두 점을 따내 우승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PGA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막 기회’

윈덤 챔피언십 5일 개막...임성재·이경훈·김시우 등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최종 경쟁이 펼쳐진다.

2021-2022시즌 PGA 투어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인 윈덤 챔피언십(총상금 730만 달러)이 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7131야드)에서 개막한다.

지난해 9월 개막한 PGA 투어 2021-2022시즌은 윈덤 챔피언십을 끝으로 정규시즌을 마치고 이후 세 차례의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대회가 이어진다.

이번 대회 성적을 포함해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125위 안에 진입한 선수들만 플레이오프 대회에 최종 진출한다. 따라서 이번 대회에선 페덱스컵 포인트 125위 안에 들기 위한 선수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회에서도 수많은 선수가 이 대회 결과에 따라 웃고 울었다. 지난해 대회 연준전에 진출한 로저 슬론(캐나다)과 공동 15위에 오른 스콧 피어시와 체스 해들리(이상 미국)는 극적으로 125위 이내에 진입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뤄냈다.

반면 한때 세계랭킹 1위에 올랐던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는 공동 10위의 성적을 내기도 126위에 그쳐 플레이오프 진출이 무산됐다.

한국 선수들은 임성재와 이경훈, 김시우, 강성훈, 노승열, 김주형 등이 총출동한다.

페덱스컵 순위 15위인 임성재와 39위인 이경훈, 49위인 김시우는 125위 내 진입을 걱정할 일이 없이 대회를 치른다. 현재 417점을 쌓아 103위(416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 중인 김주형은 대이변이 벌어지지 않는 한 2022-2023시즌 PGA 투어 출전권을 품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대회 파워 랭킹에서 임성재가 빌리 호설(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고, 김시우와 김주형도 각각 4위와 9위에 올라 지난 5월 이경훈의 AT&T 바이런 넬슨 우승 이후 85일 만에 한국 선수의 우승을 기대할 만하다. /연합뉴스

순천시청 이하늘 소프트테니스 혼합복식 우승

대통령기 단체전은 준우승
장인성은 혼합복식 은메달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이 제60회 대통령기 대회에서 혼합복식 우승·준우승, 단체전 준우승을 이뤘다.

순천시청 이하늘은 최근 끝난 대회 혼합복식 결승에서 고은지(옥천군청)와 조를 이뤄 같은 소속팀인 장인성(순천시청)-김연화(안성시청)조와 대결, 5-4로 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시청은 단체전에서는 준우승을 기록했다.

준결승에서 달성군청을 2-0으로 제압한 순천시청은 수원시청과 우승을 놓고 다투었다.

진희성-장인성 조가 제1 복식에서 김태민-윤지환 조에 2-5로 패한 뒤, 강래준도 제2 단식에서 국가대표 김진웅을 만나 0-4로 지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백수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 감독은 “좋은 성



제60회 대통령기 대회 혼합복식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이룬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 이하늘(왼쪽)과 장인성. <전남도 체육회 제공>

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한산: 용의 출현
2관	한산: 용의 출현
3관	한산: 용의 출현, 보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
4관	비상선언
5관	비상선언
6관	비상선언, 미니언즈2
9관	미니언즈2, 헤어질 결심,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우주소전쟁 리틀스타 워즈 2021
7관	씨네캐슬, 외계+인 1부,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8관	씨네캐슬, 탐간: 매버릭,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우주소전쟁 리틀스타워즈 2021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합창단 수시연주회
요들송과 함께하는 합창의 밤
일시 : 2022.08.23.(화)
장소 : 광주문화센터
문의 : 062-415-5203

광주국악상설공연
2022.08*
光州國樂
일시 : 2022.08.02.(화)~31.(수)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